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2 0 1 0 8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고사

문제수 및 고사 시간

문제수	시 간	배 점
3	10:00~11:40(100분)	[문제 1]은 총 점수의 34%, [문제 2], [문제 3]은 각각 33%

수험생 유의사항

- 답안지에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번호 앞자리를 정확히 쓸 것
- 계산기와 통신기기 등은 휴대할 수 없음(휴대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답안지는 1매만 사용해야 하며, 2매 사용 시 무효 처리함
-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볼펜, 사인펜)만 사용할 것
(연필, 샤프, 지워지는 볼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문제지의 여백은 연습장으로 활용 가능함
-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 0점 처리 기준
 - 답안지에 답 이외의 특정 표기나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시를 한 경우
 -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수정이 가능한 필기구류(연필, 샤프, 지워지는 볼펜 포함) 등으로 작성한 경우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 답안지를 2매 이상 사용한 경우(지정된 범위를 벗어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채점 불가)

[문제 1]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리(琉璃)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寶石)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정지용, 「유리창(琉璃窓)1」

(나)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매일 호숫가를 찾았다는 나르키소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결국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가 죽은 자리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수선화(나르키소스)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는 결말이 달랐다.

나르키소스가 죽었을 때 숲의 요정 오레이아스들이 호숫가에 왔고, 그들은 호수가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대는 왜 울고 있나요?” 오레이아스들이 물었다.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어요.” 호수가 대답했다.

“하긴 그렇겠네요. 우리는 나르키소스의 아름다움에 반해 숲에서 그를 쫓아다녔지만, 사실 그대야말로 그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숲의 요정들이 말했다.

“나르키소스가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호수가 물었다.

“그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르키소스는 날마다 그대의 물결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잖아요!” 놀란 요정들이 반문했다.

호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저는 지금 나르키소스를 애도하고 있지만, 그가 그토록 아름답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가 제 물결 위로 얼굴을 구부릴 때마다 그의 눈 속 깊은 곳에 비친 나 자신의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으니, 아, 이젠 그럴 수 없잖아요.”

파울루 코엘류(Paulo Coelho), 『연금술사』 일부

(다)

숲에서 열심히 식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불현듯 가슴이 턱 하고 내려앉는 깊은 감동이 몰려온다. 나무 사이로 스미는 부드러운 햇살을 받고 살아가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식물의 세상은 예전부터 막연히 동경해 오던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겠는가? 그 세상은 때론 내가 들어 앉은 숲이라는 공간 전체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현미경을 통해 만난 미세한 씨앗의 껍질 무늬이기도 하다. 그 자연이라는 우주를 체험하고 공부하고 있으니 어찌 내가 그 세상의 끈을 놓을 수 있으랴.

이렇게 내가 식물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원에 막 들어가서 ‘한국의 야생화 대탐사’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우리 식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 ‘한라에서 백두까지’란 부제로 1년 간 전국 곳곳으로 갖가지 식물들을 찾아 누빌 수 있는 기회였다. 식물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으로서 앞으로 내가 평생 공부할 대상을 논문이나 도감(圖鑑)의 글자와 그림이 아닌, 이 땅 곳곳에서 피고 지는 살아 있는 모습 그대로 식물들을 보게 되었다.

특히 국교(國交)가 없던 시절, 제3국을 통해 비자를 받아 백두산에 첫발을 들여놓던 순간은 정말 이지 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도감에서만 보았던 그 많은 꽃들이 용단처럼 펼쳐져 나를 맞아 주었을 때의 감격은 두 번 다시 찾아올 것 같지 않다. 그렇게 1년 간 두 발로 뛰면서 얻은 체험은 식물에 대한 내 첫사랑의 시작이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여전히 내 가슴속에 살아 숨 쉬며 피고 지기를 거듭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유미, 「풀 한 포기 행복」 일부

(라)

한국 장기 기증원 누리집의 ‘뇌사 기증자 추모관’에는 이런 글이 게시돼 있다. “언젠가는 나의 주치의가 내 뇌 기능이 멈추었다고 단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의 나의 목적과 의욕이 정지되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때 나의 침상을 죽은 자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산 자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중략...)

김 씨는 지난 여름 방학 때 경기도 연천군에서 초청한 일본인들의 통역 일을 맡았다. 비가 내리던 18일 밤 11시 40분, 전곡읍의 숙소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쏘살같이 내닫던 과속 승용차에 치였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이 없다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다며 병원에서 난색을 표했다. 밤거리를 헤매다 19일 오전 4시에야 서울 면목동의 한 병원에 도착해 간신히 수술을 받았다. 수술 결과는 좋지 않았다. 모교인 ○○대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8월 21일이었다. 그의 부모는 심사숙고 끝에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장차 선생님이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던 아들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22일 심장·간·신장(2개)·소장을 적출하는 수술이 이루어졌다. 1미터 87센티미터 70킬로그램. 그의 부친 김△△(57) 씨는 내가 봐도 잘생긴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 환칠한 청년이 나누어 준 장기 덕분에 추석을 앞두고 5명이 새 생명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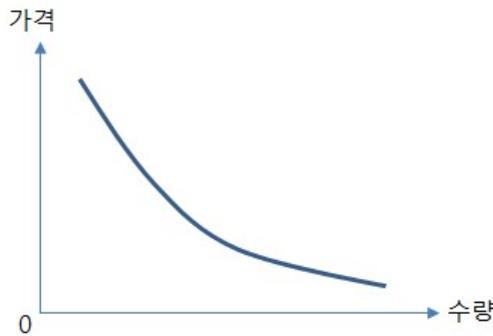
* * 일보 2012년 9월 8일 기사 일부

위의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모두 ‘사랑’에 대하여 쓴 글이다. 각 제시문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600±30자로 작성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지 마시오).

[문제 2] 다음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을 덜 구입하려 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더 구입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상품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역의 관계,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런 수요의 법칙을 반영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하지만 어떤 상품의 수요량은 그 상품 가격 이외에도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소득이나 기호 등은 상품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

(나)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재력이다.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방편은 모두 그런 여가나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층에서도 유행하기에 이른다. 사회를 구성하는 어떠한 계급도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과시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가장 극단적인 생계의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을 제외하면 누구나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최신 품목들을 소비하려고 든다.

(다)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비교하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거나 행동이나 판단의 근거로 여기는 집단을 준거집단이라고 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준거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제시문 (가), (나), (다)를 모두 이용하여 <보기>의 A백화점에서 청바지 판매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하시오(600±30자로 작성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지 마시오).

<보기>

A백화점은 유명 브랜드에서 제조한 고가의 청바지를 판매하고 있다. A백화점의 경우, 인기 가수 J가 입어 유행하고 있는 특정 청바지 가격을 최근 석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량은 증가했다. A백화점은 올해 5월에는 50만원에 100벌을, 6월에는 60만원에 120벌을, 그리고 7월에는 70만원에 150벌을 판매했다.

[문제 3] 다음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의 의사 결정을 국민이 직접 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가 대표성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며 정치 활동을 하는 민주주의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영토가 넓어지면서 온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워졌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제한하여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되는 문제와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대표자와 국민의 의사가 다를 수 있으며, 대표자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소수의 대표자가 국정을 좌우할 수 있다.

(나)

현대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의 특징도 지닌다. 참여 민주주의란 일반 시민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여 행정기관의 일탈 행동을 감시하는 등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집회 참여, 청원, 시민단체 활동, 자문위원회나 공청회, 청문회 참여, 국민 감사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의 자발적인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통한 간접적 참여를 넘어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론의 수용 과정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규범성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참여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나 소수의 선동, 자기가 속한 집단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이기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

(다)

1960년 3월 15일에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유당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을 후보로 내세웠는데,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부통령 선거였다. 이승만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야당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관권을 동원하였으며, 사전 투표, 3인조 공개 투표 등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

선거 이후 전국 각지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였다. 4월 11일에는 마산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되었다. 김주열의 죽음을 계기로 마산 시위는 다시 격화되었으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4월 19일에 부정 선거와 정권의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시위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승만 정부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 날에만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주요 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계엄군은 경찰과 달리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며 최대한 중립을 지켰다. 4월 26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 마침내 이승만은 대통령 직을 사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얼마 뒤 하와이로 망명했다.

제시문 (가),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4·19 혁명’의 의미를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600±30자로 작성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지 마시오).